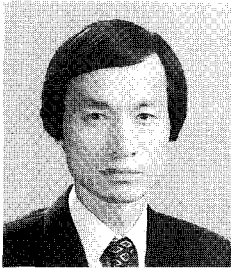


# 중국산가금육 수입재개, 가금인플루엔자 대책을 듣는다

## 성명서 발표와 같은 단발성 일과로 끝낼 일 아니다



윤 정 로  
(독바위농장 대표)

**이** 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 축산인들은 왜, 언제나 약자로 취급받아야만 하는 것인지 정부당국에 반문하고 싶다.

이제는 세계 모든 시장이 개방되었고, 자본주의 방식으로 무역이 이루어지다 보니 외교 문제도 단순히 경제논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장의 이익을 생각하여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는 것이다. 과거 모 계열업체에서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제논리를 내세워 종란 600만개를 수입하면서 국내에 없던 각종 질병이 유입되는 빌미를 제공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번 일을 진행하면서 양계농가를 파멸시키고,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는 했는지 답할 따름이다. 중국이 일본으로 수출하는 닭

고기 물량이 과거 10년전에는 겨우 전체 수입물량중 10%선에 머물렀던 것이 지난해에는 무려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국은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런식의 경제논리로 나오면 당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지난번 생산자 단체를 고집하며 양계협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계육협회의 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다보니 양계협회에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다. 과거의 경우를 보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는가 하면 수수방관(袖手傍觀)하는 식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인상을 주어왔다. 축산전문 언론에서도 이를 강도높게 비판했으며, 관련 단체들은 이런 여론을 관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대로 멈추어서는 안된다. 모든 일이 성명서 하나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회원들의 비난을 무마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중국측과 약속한 가금육수입위생조건을 어기지 않고 지켜갈 수 있도록 잘못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농가들이나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며, 우리의 입장이 끝까지 관철될 때까지 밀고 나가야만

할 것이다. 금수조치를 취한지 1달만에 다시 수입을 허용하고, 수입을 허용한지 1달도 안 되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는 식의 관행은 이제 벗어 버려야 할 것이다.

우리 생산자들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이다. 그저 국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사명을 갖고 무던히 땀흘려 양계산물을 생산하는 죄밖에 없다. 이런 마당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질병을 정부기관인 검역원이나 당국에서 막아주지 않으면 국가라는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정부에서 약속한 법조항들도 1달도 안되어 합의논리로 바뀌 버린다면 누가 이 나라를 법치국가라 하겠는가?

우리 생산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 위생이다. 특히, 이번 가을부터는 AI가 농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질병을 정부기관인 검역원이나 당국에서 막아주지 않으면 국가라는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정부는 고병원성 가금 인플루엔자가 법정 제1종 전염병으로 소·돼지의 구제역에 버금가는 무서운 질병임을 직시하고 우리 양계농가를 살릴 수 있는 극단의 조치를 취해주길 바라는 바이다. **양계**



## 질병예방이 최우선임을 망각한 어처구니 없는 처사...



최 성 갑  
(도원농장 대표)

지난 6월 4일 중국산 가금육에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의 검출로 중국산 가금육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중국측의 압력에 굴복하여 7월 5일 중국산 가금육의 수입금지를 해제하여 중국산 가금육의 수입을 재개하였다.

축산업에서의 질병과의 싸움은 축산인 뿐만 아니라 정부 및 모든 관련 단체가 앞장

을 서야함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구제역이 발생하였을시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국적으로 군·관·민을 동원하여 방역대책을 수립,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비하면 이번 조치는 질병 예방이 최우선임을 정부가 망각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 <현 상황에 대한 대책>

① 우리 양계인은 가금인플루엔자에 대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정부 및 각 관련업체에 홍보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못하도록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을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양계인 스스로가 참여의식을 가지고 협회를 기점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작금의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양계인 스스로 각자 무엇을 하였는지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양계인들은 못하면 양계협회의 책임이고 잘 되면 말이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몇몇이 앞에 나서서 전 양계인을 대변한다면 그들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하는 것은 양계인 스스로가 할 일이다. 힘 실어주는 일을 게을리 하면 이번과 같은 일이 자주 발생 할 것이다.

② 이제는 각자 질병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 대책만이 각자의 살길임을 명심하여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 이외는 없다고 본다. 이번 조치로 정부가 양계산업에서의 질병발생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한 것 같다. 결국 양계인 스스로가 해결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③ 몇일전 홍콩에서 중국산 닭고기에서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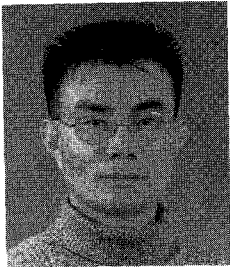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의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이 현실화된다면 그 책임이 명백히 정부 당국에 있음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가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렇다면 중국내에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의 존재는 명백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정부는 현지조사를 해서라도 국내에 이 질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④ 이번 상황으로 우리 양계인은 합심하여 우리나라에서의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이 현실화된다면 그 책임이 명백히 정부 당국에 있음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양계산업의 장기 계획은 수출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의 성공여부는 질병의 차단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나라마다 자국의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병 발생국의 육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공통된 개념이며, 또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는 1종 법정전염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이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시 가금사육농가 그 중에서 닭 사육 농가는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안일한 대책으로 이병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엄청날 것이다. 사육농가의 한 사람으로서 울분을 금할 수 없다. **양계**

## 금수조치 해제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김 재 현  
(건업농장 대표)

지난 6월 4일자로 중국산 가금육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해제 및 보관중인 가금육의 처분 및 반송조치가 7월 5일자로 일부 해제 조치가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먼저 양계인으로서 느끼는 것은 국내 가금육 시장에 대한 위협과 함께 질병 위험성으로 인한 두려움이 현실적으로 다가서고 있다.

우리는 지난번 금수조치에 대하여 양계관련 단체들과 더불어 정부의 입장을 박수치고 응원해 주기에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없이 한 달만에 금수조치 해제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을 연출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양계인의 한 사람으로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금번 가금육 수입해제 조치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과 대책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양계인들은 향후 금수조치 해제 시 반드시 정부와 업계차원에서의 현지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수입업계에도 같은 목소리를 냈던 것으로 안다. 정부의 확실한 입장표명을 바란다.

둘째, 이미 유통된 중국산 가금육에 대한 사실상, 회수, 폐기, 반송 등은 불가능한데다 이번에 검출된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말을 소비자들이 신뢰하지 못하므로 정부 당국은 닭고기, 계란 등 전반적인 가금축산물 소비 위축 해소를 위한 대소비자 홍보방안을 세워주기 바란다.

셋째, 근본적인 축산물 위생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번 사건에서도 궁극적인 대처방안으로 제시되는 축산물 최종 소비지에서의 원산

한 달만에 금수조치 해제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을 연출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양계인의 한 사람으로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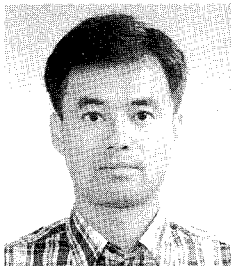
지 표시제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겨울과 봄동안 AI로 많은 농장들이 생산성 저하와 폐사를 불러왔다. 채란업계에서는 가뜩이나 지난 1년반이라는 어려웠던 기나긴 터널을 간신히 지나왔는데 다시금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라는 장벽에 부딪쳐 이중고를 겪어 오고 있다. 자꾸만 채란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빼앗아 가지 않기를 바란다.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히 대한양계협회를 포함해 3개 가금관련 단체가 가금산업종사자

들의 피해에 상응한 보상조치와 중국산 가금육에 대한 회수, 반송, 폐기 조치 즉각 시행 등을 주장하는 한편, 법정 제1전염병으로 AI에 대한 새로운 인식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국민건강과 국내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국정부의 내정간섭적 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목소리를 합하여 정부의 국내 양계산업 보호와 발전을 위한 올바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양계**



## AI정책 이대로 방치하면 국내경제 최악의 상황 초래할 수도...



손 영 호

(반석가금진료연구소 소장/수의사)

**최** 근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상품을 포장한 나무상자 속에 중국딱정벌레가 함께 들어와 뉴욕시와 시카고시 등 서식처 일대의 나무를 갉아먹기 시작,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기미를 보여 미국 삼림에 위협적 존재가 되고 있다는 워싱턴 포스트지의 보도 내용을 보면서,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된 중국산 오리에서 HPAI(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H5N1)가 검출되어 지난 6월 4일부터 중국산 가금육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결정은 문두에 소개한 미국의 딱정벌레 사건이 주는 교훈을 보더라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7월 5일 중국산 가금육 금수조치가 돌연 해제되고 말았다. 언론매체나 각종 정보에 의하면 중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설령 대중국 국책사업의 중요성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1997년 12월 29일 홍콩에서 있었던

사상최대의 닭 도살작전이 왜 행해져야 했는지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수해제조치가 얼마나 큰 재앙을 부를 것인가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인 것이다. 만일 중국산 가금육에서 발견된 HPAI H5N1 바이러스가 국내 가금류에 오염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 1. 국내 가금인플루엔자 발병형태의 변화

지금 국내에서 발병되고 있는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H9N2로 약병원성이며, 1996년 3월 경기 화성에서 발병되어 살처분된 이후 지금까지 그 혈청형이 변하지 않고 있다. 동물에서 발병되고 있는 TypeA 바이러스 외막에 붙어 있는 14종의 HA(Hemagglutinin)와 9종의 NA(Neuraminidase)가 서로 조합되었을 때 126종의 TypeA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존재하게 되는데 국내에 H5N1이 들어오게 되면 또 다른 Type의 AI 바이러스가 출현하게 되어(H9N1, H5N2등) 질병을 차단하거나 예방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그에 따라 현재 국내의 AI 방역정책이 실패할 뿐 아니라 혈청형이 다를 경우 서로 교차면역이 잘 되지 않는 AI의 특성상 백신을 사용하여 AI를 예방하기는 더욱 더 어려워지게 되어 결국에는 국내 양계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반드시 주목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금번 중국가금육에서 발견된 H5N1 Type은 고병원성인플루엔자(HPAI)라는 사실이며, 만일 H5N1 Type이 국내 가금류에 감염된다면 현재 국내에서 발병하는 정도의 양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임

상증상을 보일 것이므로 어떤 경로이든 HPAI 바이러스의 유입은 반드시 차단되어야 한다.

### 2. 국내 양계산업의 존폐 여부 논란

AI는 OIE(국제수역사무국) List A 질병이며, 국내에서도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동물이 사람에게 옮기는 전염병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 1968년 홍콩독감의 경우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무려 4만6천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계적인 재앙을 일으킨 HPAI가 국내에서 발병한다면 국내의 시장에서의 양계산업은 한순간에 몰락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대대적인 가금류의 살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며, 국내 검역정책의 책임이 많은 사람들에게 물리어질 것이다. 또한, 해외에서 관광의 목적이든, 사업의 목적이든 국내에 들어오자 하는 사람들이 입국을 꺼리게 되어 무역수지의 적자상황이 심각해지고,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국내 산업기반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어 국내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맞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구제역이 발생하였을 때 정부와 전국민이 하나되어 보여주었던 단호한 차단 방역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중국 대륙의 구제역 바이러스가 황사에 묻어 전파될 가능성까지도 생각하며 대처했던 모습의 절반만이라도 중국유래의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의지를 기대해본다. **양계**